

산업장 간호원으로서의 나

대우조선(주)

김 현 주



산업장 간호원으로서 조선소에 몸 담아 근무한 지 벌써 2년이 넘는다.

간호학교를 마약 졸업한 나로서는 거리가 낫설고 생소해 무척 부담스러웠다. 더우기 기름배인 시키면 작업복의 그저 무작스럽게만(?) 보이는 남자들을 상대로 치료하며 대해야 되는 나의 입장이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다.

기존 의무실이 없었던 우리 회사는 내가 입사하게 되므로써 의무실을 처음 갖게 되는 셈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회사측에서도 첫 간호원에, 회사나 나 자신으로나 둘 다 첫 걸음마를 하는 입장이니 준비하는 과정이나 무엇으로든 어색했고, 어려운 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입사한지 약 보름만에 영성하고 부족하나마 대강의 의무실 형태가 갖춰지고 드디어 84年2月18日 회사로는 처음으로 의무실이라는 꽃말을 걸게 되었다.

모든 근로자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무사고로 지낼 수 있기를 마음 속 깊이 간절히 빌면서, 회사 간부님들 이하 같은 과 직원들과 함께 의무실의 문을 거국적 아니 거사적으로 열어젖혔다.

여자 사원들이 거의 없는 조선소에서 흰 Gown을 입은 이 간호원의 모습에서 그들은 신기하게 느꼈던지 짓궂게는 골려줄 생각을 가지고, 별신통치 않은 상처로 의무실 문을 노크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다”라고 했던가?

아무튼 나의 산업장 간호원으로서의 생활은 나비처럼 연약하고 부드럽게 보이면서도, 벌처럼 따끔한 침을 보유한 어렵게 어렵게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어느덧 나는 그들의 단순하면서도 우직하고 직선적인 속성을 이해해 갔고, 그들 역시 나를 하나 둘, 어떤 이는 산업장 간호원으로서의 고충까지도 이해해 주는 듯했다.

그동안 내가 그들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받았던 선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브껌 2통, 야쿠르트 1병, 스타킹 3켤레, 콜라 2병,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커피와 울무차..... 다 기억해야 되고, 고마와 해야 할 일들이지만, 그들로부터 받았던 작지만 정성어린 그 큰 선물들이 미안하고 어쩔때 마음에 부담까지도 되는 것은 좀 더 성의를 다해 그들을 치료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양심의 가책의 일종인 것이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 찾아온 환자를 통명스럽게 대했던 거랑, 출근 하자마자 Gown 으로 갈아 입기도 전에 의무실을 찾아온 환자, 전날 철야근무중에 다쳤던 그 아픈 상처를 보고서도 아직 8시 (회사 업무 시작임) 가 안됐다는 이유로 기다리게 했던 일 들..... 이 얼마나 사명감 아니 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였는가.

어언 세월이 지나 2년이 넘고,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에 의해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싶다. 얼마나 더 산업장 간호원으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팅게일 신서까지 굳이 꺼내 들지 않더라도 처음 산업장 간호원으로 입사할 때의 그 굳디굳은 나의 소신으로 밀

고 나간다면, 지금보다도 덜 나태하고, 덜 피동적인 자세로 일하지 않을 것을. 좀 더 나은 현장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현장 근로자들에 의한, 꼭 필요한 그들의 백의의 천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욕심을 좀 부린다면 내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져 쏘프라노를 낼 수 있을 그때는 내가 서 있는 영역을 넓혀서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건의 등등.....에도 참여하여야겠다는 용기도 가져보지만,

영구취직 즉 시집이라는 핸디캡 (?) 을 생각하면 그만 목이 움추러든다.

그러나 하이힐 뒷굽에 힘을 주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걸어야 되지 않을까.

● 마음이 머무는 길목에서 ⑦ ●

流頭 東流水에

유뚫날은 음력으로 유월 보름날이다.

東流頭沐浴의 준말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거의 잊혀져가는, 그러나 新羅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의 俗節의 하나이다. 예로부터 農者가 天下의 大本노릇을 하던 우리네 農耕社會에서 시기적으로 파종도 끝났겠다 논밭마다 제자리가 다 찬 잠깐의 어름이니까 한숨놓고 쉬는 民俗이겠다.

이날, 東流水 (동쪽으로 흐르는 맑은 개울물) 에 머리를 풀어감고 목욕을 하며, 선비들은 갓끈을 손질하고 부녀들은 창포줄기로 비녀를 깎아서 머리에 꽂으며 애들은 담장밑 난초잎새로 풀각